

2025 년 가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바울의 서신들 안에 있는 진리의 중점들 —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메시지 8

능력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비결을 배움으로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확대하고, 그리스도를 얻어 교회 안에서 그분께 영광을 돌림

성경: 빌 1:19-21 상, 2:2, 4:8, 11-13

[빌 1:19-21] 왜냐하면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²⁰⁾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매사에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²¹⁾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나에게 있어서 죽음은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빌 2:2] 여러분은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혼 안에서 연결되고, 한 가지 것을 생각하여, 나의 기쁨이 넘치도록 해 주십시오.

[빌 4:8] 마지막으로, 형제님들, 무슨 일에든지 참되며, 무슨 일에든지 장중하며, 무슨 일에든지 의로우며, 무슨 일에든지 순수하며, 무슨 일에든지 사랑스러우며, 무슨 일에든지 평판이 좋아야 하며, 그리고 어떤 미덕과 어떤 칭찬이 있거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빌 4:11-13] 내가 궁핍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떤 처지에서든지 만족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¹²⁾ 나는 비천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고 풍부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하거나, 각각의 일과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¹³⁾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I. 바울은 능력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비결을 배웠다 — 빌 4:11 하-13, 영한동번 찬송가 564 장.

[빌 4:11-13] 내가 궁핍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떤 처지에서든지 만족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¹²⁾ 나는 비천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고 풍부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하거나, 각각의 일과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¹³⁾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영한동번 찬송가 564 장

1 나는 알았다네 주님 안에 거하는 비결

나는 맛보았네 말씀 통해 생명 생수를

나는 발견했네 보혈 인한 힘과 능력을

나는 잠긴다네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

(후렴)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 의지하면서

주의 사랑스런 품에 안기네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 의지하면서

주의 사랑스런 품에 안기네.

- 2 나는 체험하네 주와 함께 죽고 사는 것
나는 멈추었네 나의 헛된 모든 노력을
나는 원한다네 주의 영이 다스리는 것
나는 누린다네 용서하는 보혈의 효능
- 3 주가 담당하네 나의 모든 약함과 질병
주가 보살피네 나의 고통 모든 두려움
주가 불어주네 힘을 주는 거룩한 공기
주가 주신다네 그의 생명 믿음 사랑을
- 4 주의 말씀 지혜 주네 영은 능력을 주네
주가 인도하네 매 시간 무한한 임재로
주가 공급하네 내 마음의 기쁨의 원천
주가 가져오네 치유함과 거룩함까지

- A. 바울은 그리스도께 돌이킨 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입문하였다. 그런 다음 바울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하고(골 3:4), 그리스도를 살고(빌 1:21 상), 그리스도를 확대하고(20 절), 그리스도를 얻고(3:8, 12), 교회생활을 하는(1:8, 19, 2:1-4, 19-20, 4:1-3) 비결을 배웠다.

[골 3:4]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빌 1:21]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나에게 있어서 죽음은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빌 1:20]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매사에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빌 3:8]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또한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빌 3:12] 내가 이미 획득하였다는 것도 아니고, 이미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나 또한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힘을 다하여 추구할 뿐입니다.

[빌 1:8]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속부분들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에 대해,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빌 1:19] 왜냐하면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빌 2:1-4]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격려나, 사랑의 어떤 위로나, 영의 어떤 교통이나, 어떤 부드러운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²⁾ 여러분은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혼 안에서 연결되고, 한 가지 것을 생각하여, 나의 기쁨이 넘치도록 해 주십시오. ⁽³⁾ 어떤 일도 이기적인 야심으로 하지 말고, 헛된 영광을 위해 하지 말며, 오직 생각을 낮추어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⁴⁾ 각자 자기의 장점만 귀하게 여기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장점도 귀하게 여기십시오.

[빌 2:19-20] 나는 주 예수님 안에서 디모데를 속히 여러분에게 보내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사정을 알게 되어 나도 격려를 받게 될 것입니다. ⁽²⁰⁾ 나와 같은 혼이 되어 여러분의 사정을 진심으로 돌볼 사람이 디모데 외에는 나에게 아무도 없습니다.

[빌 4:1-3]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형제님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게 서십시오. ⁽²⁾ 내가 유오디아에게 권유하고 순두게에게도 권유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것을 생각하십시오. ⁽³⁾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나와 함께 명예를 댈 그대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이들을 도와주십시오. 이들은 나와 함께, 또한 글레멘드와 나의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습니다.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 B. 과거에 바울은 완전히 유대 종교 안에서 율법 아래 있었고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 안에서 발견되었지만, 주님께 돌이켰을 때 율법과 그의 이전 종교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져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되었다 — 고후 12:2 상.

[고후 12:2]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그는 십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갔습니다(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 C. 이제 바울은 그를 지켜보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기대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온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 잠기고 그리스도로 적셔져, 그를 지켜보는 모든 이들이 그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를 열망했다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때에만, 그리스도는 표현되시고 확대되실 것이다 — 빌 3:9 상, 1:20.

[빌 3:9]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온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나온 의입니다.

[빌 1:20]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매사에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 D. 우리는 한 면으로 그리스도께서 능력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고(빌 4:11-12), 또 다른 한 면으로 그리스도께서 능력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참되고 장중하고 의롭고 순수하고 사랑스럽고 평판이 좋을 수 있다(8 절).

[빌 4:11-12] 내가 궁핍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떤 처지에서든지 만족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¹²⁾ 나는 비천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고 풍부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하거나, 각각의 일과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빌 4:8] 마지막으로, 형제님들, 무슨 일에든지 참되며, 무슨 일에든지 장중하며, 무슨 일에든지 의로우며, 무슨 일에든지 순수하며, 무슨 일에든지 사랑스러우며, 무슨 일에든지 평판이 좋아야 하며, 그리고 어떤 미덕과 어떤 칭찬이 있거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 E.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어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인간 미덕들로 삶으로써 무한히 위대하신 그분을 확대한다. 이러한 미덕들을 지닌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 빌 1:20.

[빌 1:20]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매사에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 II. 우리가 믿고 침례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졌다(고전 1:30, 롬 6:3, 갈 3:27). 이제 우리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신 주님 안에 거하는 비결을 배워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그분 안에 거주하고 그분과의 교통 안에 머물러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다(요 15:4-5).

[고전 1:30]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 곧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롬 6:3]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갈 3:27] 이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요 15:4-5] 내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여러분 안에 거하겠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⁶⁾ 나는 포도나무요, 여러분은 가지들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떠나서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A.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거처로 삼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를 그분의 거처로 삼으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과 구속받고 거듭난 믿는 이들로 이루어진 우주적인 합병체의 실재 안에 사는 것이다 — 요 14:2, 10-11, 17, 20, 23, 계 21:3, 22, 출 16:32-34, 히 9:4, 계 2:17.

[요 14:2] 나의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내가 가서 여러분을 위하여 한 곳을 예비하겠습니다.

[요 14:10-11]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그대가 믿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¹¹⁾ 여러분은 나를 믿으십시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믿지 못하겠다면, 내가 하는 일들 때문이라도 믿으십시오.

[요 14:17] 그분은 실재의 영이십니다. 세상은 그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 14:20]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여러분이 내 안에 있으며, 내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요 14:23]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할 것입니다.

[계 21:3] 또 나는 보좌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장막을 치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직접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계 21:22] 나는 성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과 어린양께서 그 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출 16:32-34] 모세가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만나를 한 오멜 가득 채워 대대로 보관하여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게 한 이 양식을 자손들이 볼 수 있게 하여라.’ ”⁽³³⁾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항아리 하나를 가져다 그 안에 만나 한 오멜을 가득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대대로 보관하십시오.”⁽³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론이 만나를 증거판 앞에 두어 보관하였다.

[히 9:4] 지성소는 금향단과 전체를 금으로 입힌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고,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싹 난 막대기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습니다.

[계 2:17]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이에겐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것이다. 그 돌 위에는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새 이름이 적혀 있다.’

- B. 우리는 우리의 왕이자 궁전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 이럴 때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그분의 왕비와 왕궁, 곧 그분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드실 수 있다 — 시 45:13, 8, 요 15:4-5, 엡 5:27, 계 22:5, 롬 5:17, 비교 아 6:4.

[시 45:13] 왕의 딸은 왕의 거처에서 더할 나위 없이 영광스러우니 / 그 여인의 옷은 금실을 넣어 짠 것입니다.

[시 45:8] 왕의 모든 옷에서는 몰약과 침향과 계피 향기가 나고 / 상아 궁전들에서 흘러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합니다.

[요 15:4-5] 내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여러분 안에 거하겠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⁵⁾ 나는 포도나무요, 여러분은 가지들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떠나서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엡 5:27] 또한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계 22:5] 더 이상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등불과 햇빛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롬 5:17]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을 하였다면,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은 더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아 6:4] “내 사랑이여, 그대는 디르사만큼이나 아름답고 / 예루살렘만큼이나 사랑스러우며 / 깃발을 든 군대만큼이나 두렵게 한다오.

1.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그분, 곧 우리의 주님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거주함으로 그분 안에서 생활하고 그분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취하는 것이다 — 요 15:4-5, 요일 4:15-16, 계 21:22, 신 33:27 상, 시 90 편.

[요 15:4-5] 내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여러분 안에 거하겠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⁵⁾ 나는 포도나무요, 여러분은 가지들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떠나서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일 4:15-16]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¹⁶⁾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 가지신 사랑을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계 21:22] 나는 성전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과 어린양께서 그 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신 33:27] 옛적부터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대의 처소이시며 / 영원하신 팔이 그대 아래 있습니다. / 그분은 그대 앞에서 원수를 쫓아내시며 / ‘멸망시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 90:1-17] 오, 주님! 주님은 대대로 / 저희의 거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²⁾ 산들이 생기기 전 / 주님께서 땅과 세상을 내시기 전 / 참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³⁾ 주님은 사람을 흠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아들들아, 돌아가거라.” ⁽⁴⁾ 주님 보시기에는 천 년이 / 지나간 어제 같고 / 하룻밤의 한때 같습니다. ⁽⁵⁾ 주님께서 그들을 홍수로 쓸어 가듯 하시니 그들은 잠든 이 같고 / 아침에 새로 올라오는 풀 같습니다. ⁽⁶⁾ 풀이 아침에 무성하게 새로 올라왔어도 / 저녁에는 베어져 말라 버리듯 ⁽⁷⁾ 저희는 주님의 분노로 소멸되고 / 주님의 진노로 괴로움 당하였습니다. ⁽⁸⁾ 주님께서 저희의 죄악을 주님 앞에, / 저희의 은밀한 죄들을 주님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으므로 ⁽⁹⁾ 저희의 일생이 주님의 넘치는 진노 가운데 지나가고 / 저희의 연수가 순식간에 다하였습니다. ⁽¹⁰⁾ 저희의 연수가 칠십이요 / 강건하면 팔십이나 / 그 자랑거리는 수고와 슬픔뿐이며 / 덧없이 흘러가니 저희가 날아가 버립니다. ⁽¹¹⁾ 누가 주님의 분노의 위력을, / 누가 주님에 대한 경외심에 따라 주님의 넘치는 진노를 알겠습니까? ⁽¹²⁾ 그러니 저희의 날수 세는 법을 가르치시어 / 저희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¹³⁾ 오, 여호와님! 돌아와 주십시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 주님의 종들에 대해 뜻을 바꾸어 주십시오. ⁽¹⁴⁾ 아침에 주님의 자애로 저희를 만족시키시어 / 저희가 일생 환호하며 기뻐하게 해 주십시오. ⁽¹⁵⁾ 주님께서 저희에게 고통을 주신 날수만큼, / 저희가 재앙을 당한 햇수만큼 저희를 기쁘게 해 주십시오. ⁽¹⁶⁾ 주님의 일을 주님의 종들에게, / 주님의 광채를 그 자손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¹⁷⁾ 주 저희 하나님의 은총을 저희에게 베푸시어 / 저희의 손으로 하는 일을 견고하게 해 주십시오. / 참으로 저희의 손으로 하는 일, 그것을 견고하게 해 주십시오.

2.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며 매 순간 그분 안에서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분 밖에는 죄들과 많은 환난이 있기 때문이다 — 시 90:3-11, 요 16:33.

[시 90:3-11] 주님은 사람을 흠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아들들아, 돌아가거라.” ⁽⁴⁾ 주님 보시기에는 천 년이 / 지나간 어제 같고 / 하룻밤의 한때 같습니다. ⁽⁵⁾ 주님께서 그들을 홍수로 쓸어 가듯 하시니 그들은 잠든 이 같고 / 아침에 새로 올라오는 풀

같습니다. ⁽⁶⁾ 풀이 아침에 무성하게 새로 올라왔어도 / 저녁에는 베어져 말라 버리듯 ⁽⁷⁾ 저희는 주님의 분노로 소멸되고 / 주님의 진노로 괴로움 당하였습니다. ⁽⁸⁾ 주님께서 저희의 죄악을 주님 앞에, / 저희의 은밀한 죄들을 주님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으므로 ⁽⁹⁾ 저희의 일생이 주님의 넘치는 진노 가운데 지나가고 / 저희의 연수가 순식간에 다하였습니다. ⁽¹⁰⁾ 저희의 연수가 칠십이요 / 강건하면 팔십이나 / 그 자랑거리는 수고와 슬픔뿐이며 / 덧없이 흘러가니 저희가 날아가 버립니다. ⁽¹¹⁾ 누가 주님의 분노의 위력을, / 누가 주님에 대한 경외심에 따라 주님의 넘치는 진노를 알겠습니까?

[요 16:33] 내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들을 한 것은 여러분이 내 안에서 평안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십시오. 내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3. 하나님을 우리의 처소, 우리의 영원한 거처로 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가장 높고 가장 충만한 체험이다 — 시 91 편.

[시 91:1-16] 가장 높으신 분의 비밀한 곳에 거주하는 이는 / 전능하신 분의 그늘에 거하리라. ⁽²⁾ 나는 여호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네. /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신뢰하는 나의 하나님!” ⁽³⁾ 그분은 그대를 /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 / 치명적인 전염병에서 건져 내시리라. ⁽⁴⁾ 그분께서 그대를 깃으로 덮으시고 / 그분의 날개 아래로 피하게 하시리니 / 그분의 진리는 큰 방패와 작은 방패. ⁽⁵⁾ 그대는 두려워 아니하리라, 밤의 공포든 /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든 ⁽⁶⁾ 어둠 가운데 도는 전염병이든 / 한낮에 황폐하게 하는 멸망이든. ⁽⁷⁾ 그대 곁에서 천 명이 쓰러지고 / 그대 오른편에서 만 명이 쓰러져도 / 그런 일은 그대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⁸⁾ 오직 그대는 그대의 눈으로 보리니 / 악인들이 보응받는 것을 보게 되리라. ⁽⁹⁾ 그대가 내 피난처이신 여호와, / 가장 높으신 분을 그대의 처소로 삼았으니 ⁽¹⁰⁾ 어떤 해악도 그대에게 미치지 못하고 / 어떤 재앙도 그대의 천막 가까이에 이르지 못하리라. ⁽¹¹⁾ 그분께서 그대를 위해 자기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어 / 그대의 모든 길에서 그대를 지키게 하시리라. ⁽¹²⁾ 그들이 손으로 그대를 떠받쳐 / 그대의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리라. ⁽¹³⁾ 그대는 사자와 독사를 밟고 / 젊은 사자와 뱀을 짓밟으리라. ⁽¹⁴⁾ “그가 나를 사랑하기에, 나 그를 구출하며 / 그가 내 이름을 알기에, 나 그를 높은 곳에 세우리라. ⁽¹⁵⁾ 그가 나를 부르면, 나 그에게 응답하리라. / 그가 곤경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와 함께하며 / 그를 건져 내어 존귀하게 하리라. ⁽¹⁶⁾ 그의 날을 연장하여 그를 만족하게 하고 /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 c.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한다 — 요 14:21, 23.

[요 14:21] 나의 계명들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 자신을 나타낼 것입니다.”

[요 14:23]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할 것입니다.

1. 우리가 주 예수님을 사랑할 때, 주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아버지는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누림을 위해 우리와 함께 거처를 정하신다. 이 거처는 상호 거처이며, 이 안에서 삼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한다 — 요 14:23.

[요 14:23]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할 것입니다.

2. 주님을 사랑할수록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더 갖게 될 것이고, 주님의 임재 안에 더 있을수록 우리는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모든 어떠하심을 더욱 누리게 될 것이다. 주님의 회복은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 고전 2:9-10, 엡 6:24.

[고전 2:9-10] 오직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본 적이 없는 것들이고, 귀로도 들은 적이 없는 것들이며, 사람의 마음에 떠오른 적도 없는 것들이다.”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¹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을 통해 그것들을 우리에게

게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은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이들까지도 꿰뚫어 보시기 때문입니다.

[엡 6:2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패함 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 D. 우리는 모든 것을 포함한 기름바름의 내적 가르침에 주의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한다 — 요일 1:5, 7, 2:20, 27.

[요일 1:5] 우리가 그분께 듣고서 여러분에게 전해 주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요일 1:7]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안에 계신 것같이 우리도 빛 안에서 행하면, 우리는 서로 교통을 갖게 되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온갖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요일 2:20] 여러분에게는 거룩하신 분의 기름바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압니다.

[요일 2:27] 여러분으로 말하면, 그분의 기름바름이 여러분 안에 거하니, 아무도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기름바름이 모든 것에 관하여 여러분을 가르칩니다. 이 기름바름은 참되고 거짓되지 않으니,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 대로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1.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기름부음 받으신 분이시자 기름 부으시는 분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지체들로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그분을 내적인 기름바름으로 누린다 — 히 1:9, 3:14, 고후 1:21-22.

[히 1:9] 왕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기에,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은 왕께 큰 기쁨의 기름을 부으시어 왕의 동반자들 위에 있게 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 3:14] 우리가 처음에 가진 확신을 끝까지 굳게 붙잡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동반자들이 될 것입니다.

[고후 1:21-22] 그러나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께로 견고하게 붙이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²²⁾ 그분께서 또한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시고, 그 영을 우리 마음에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2. 기름바름은 우리 안에 계신 복합되신 영께서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우리 안에 바른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으로 적셔지고 하나님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게 된다. 기름바름은 생명의 내적 감각, 내적 의식에 의해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생각을 그분의 지체들에게 전달해 준다 — 시 133 편, 고전 2:16, 롬 8:6, 27.

[시 133:1-3] 보라, 형제들이 연합하여 거하는 것이 / 얼마나 좋고 얼마나 즐거운가! ⁽²⁾ 머리 위의 좋은 기름이 / 수염을 타고 /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 그의 옷단에 흘러내림 같고, ⁽³⁾ 헤르몬의 이슬이 /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아라. /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 영원한 생명이라.

[고전 2:16] 누가 주님의 생각을 알아 주님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롬 8:6]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롬 8:27]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은 그 영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 영께서 하나님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3. 머리이신 분은 몸의 한 지체가 움직이기를 원하실 때 내적 기름 바름을 통하여 그러한 원하심을 넘기시어 알려시며, 우리가 그 기름 바름에 복종할 때 생명은 머리이신 그분에게서 우리에게로 자유롭게 흐른다. 우리가 그 기름 바름에 저항하면, 머리이신 분과 우리의 관계는 방해받으며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흐름은 중단된다 — 골 2:19.

[골 2:19] 머리를 붙들지 않습니다. 온몸은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머리로부터 풍성하게 공급을 받고 함께 짜여,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4.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십자가로 처리받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에 복종하며 몸의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그 영의 기름 바름을 가지며 몸의 교통을 누릴 것이다 — 엡 4:3-6, 15-16, 고후 2:12-15.

[엡 4:3-6] 화평의 때는 띠로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키십시오. ⁽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름을 받았을 때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⁵⁾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입니다. ⁽⁶⁾ 하나님도 한 분이시며,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 위에 계시고, 모든 사람을 통과하여 계시고, 모든 사람 안에 계십니다.

[엡 4:15-16]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¹⁶⁾ 그분으로부터 온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 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고후 2:12-15] 더욱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갔을 때, 주님 안에서 나에게 문이 열렸으나 ⁽¹³⁾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했으므로 내 영 안에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¹⁴⁾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개선 행진 가운데 이끄시며, 어디서나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십니다. ⁽¹⁵⁾ 왜냐하면 구원받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러지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 E. 우리는 우리 밖에 있는 성경의 항상 있는 말씀과 우리 안에 계신 그 영이신 현재의 말씀을 대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한다 — 요 5:39-40, 6:63, 고후 3:6, 계 2:7.

[요 5:39-40] 여러분이 성경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⁴⁰⁾ 그런데 여러분은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 6:63]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 영이십니다. 육체는 무익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고후 3:6]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게 하셨습니다. 사역자들은 문자에 속해 있지 않고 그 영께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그 영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계 2:7]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1. 밖에 있는 기록된 말씀에 의해 우리는 비밀한 분이신 주님에 대한 설명과 정의와 표현을 갖고, 안에 있는 살아 있는 말씀에 의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실지적인 분이신 주님의 임재를 갖는다 — 엡 5:26, 6:17-18.

[엡 5:26]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엡 6:17-18] 그리고 온갖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구원의 투구와 그 영의 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¹⁸⁾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힘을 다해 늘 깨어 있으며, 모든 성도들을 두고 간구하십시오.

2. 우리가 주님의 항상 있는 기록된 말씀 안에 거한다면, 그분의 즉각적이고 살아 있는 말씀들이 우리 안에 거할 것이다 — 요 8:31, 15:7, 요일 2:14.

[요 8:31]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들입니다.

[요 15:7] 여러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일 2:14] 아버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 보낸 것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청년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 보낸 것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며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말하고 그분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건축해 넣으실 수 있다 — 요 15:7, 고후 2:17, 13:3, 고전 14:4 하.

[요 15:7] 여러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고후 2:17] 우리는 다른 많은 사람처럼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물을 섞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서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고후 13:3]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증거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에 대하여 약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안에서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고전 14:4] 다른 언어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건축하지만, 신언하는 사람은 교회를 건축합니다.

- F. 믿는 이들은 비결을 배우고 있는 제자들 곧 배우는 이들이다. 여기서 비결을 배우다는 것은, 믿는 이들이 실재의 영계서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삶의 실지 상태의 모든 실재 안으로 그들을 안내하시도록 허락해 드림으로써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 하셨다. 하나님은 그분의 생활 안에 계셨고, 그분은 하나님과 하나이셨다 — 요 16:13, 엠 4:20-21.

[요 16:13] 그러나 실재의 영계서 오시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모든 실재 안으로 안내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말씀하시며, 장차 올 일들을 여러분에게 알려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엠 4:20-21]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²¹⁾ 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들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사람의 본으로서 이 땅에서 사신 인간 생활은 그분 자신의 인성을 부인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는 생활이었다(요 5:19, 30).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그러한 인간 생활을 통하여 그분의 제자로서 훈련을 받아 사람에게 대한 그들의 관념이 개혁되었다(빌 3:10, 1:21 상).

[요 5:19]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아들도 그와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요 5:30]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므로 나의 심판은 공정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빌 3:10]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빌 1:21]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나에게 있어서 죽음은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의 인성을 부인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사셨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고’(히 5:8), ‘순종하시어 죽기까지 하셨으며,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빌 2:8).

[히 5:8] 그분은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빌 2:8]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시어 죽기까지 하셨으며,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아니라, 순종의 생명인 부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해, 그리스도의 본에 따라 그리스도를 배운다(마 11:29). 제자는 자신의 인간 생명 안에서 신성한 생명을 사는 사람이다.

[마 11: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허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혼이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 “나는 회복 안에서 십팔 년 동안 위치만 니 형제님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았다. 내가 니 형제님에게서 본 모든 것이 나를 제자로서 훈련시켜 주는 것이 되었다.”(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9 권, 활력 그룹, 2 장, 96-97 쪽).

III. 능력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비결을 배우는 것은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교통하는 것'이다(영한 동변 찬송가 784 장). 하나님을 접촉하는 기도는 마음에서부터 진심으로 하는 말로 이루어진다.

1 기도 안에 교통하여 영 안에 주 뵈겠네

주의 임재 안에 묻고 은밀히 기다리리

(후렴) 기도 안에 교통하여 영 안에 주 뵈겠네

주의 임재 안에 묻고 은밀히 기다리리.

2 기도 안에 교통할 때 주께 맘을 열겠네

순수하고 진실하게 주 얼굴 앙망하리

3 기도 안에 교통하여 믿음으로 주 찾고

주 영 만지기 배우며 겸손히 기다리리

4 기도 안에 교통하여 영의 실재 누리리

항상 안의 느낌 따라 영으로 기도하리

5 기도 안에 교통하여 주의 말씀 들으리

주의 뜻을 새기면서 그의 갈망 이루리

6 기도 안에 교통하여 주님 안에 잠기리

주 영광으로 적셔져 주를 반사하겠네

A. 우리는 슬프고 우울하고 낙심되는 상황에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께 가져가 그것들에 대해 주님께 말씀드려야 한다. 그분은 가장 잘 들어주는 분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감정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동정하신다.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실 수 있다.

B. 우리는 주님과 충분히 대화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부을 때, 주님과의 친밀함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주님을 조금 더 알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러한 시간에 주님을 친밀하게 접촉하는 것이 주님과 통상적인 교통을 갖는 것보다 수백 배 더 낫다. 이렇게 주님을 접촉함으로 우리는 생명이 자라게 된다 — 시 62:6-8, 56:8, 비교 삼상 1:15.

[시 62:6-8] 그분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 나의 높은 산성이시니, 나 흔들리지 않으리. ⁽⁷⁾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달려 있고 / 내 힘의 반석과 내 피난처가 하나님 안에 있다네. ⁽⁸⁾ 백성들아!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고 / 그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 놓아라. /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셀라

[시 56:8] 주님은 제가 방황하는 것을 헤아려 두셨습시다. / 제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 주십시오. / 그것이 주님의 책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삼상 1:15] 그러자 한나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나의 주인님. 나는 영이 짓눌린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다만 여호와 앞에 내 혼을 쏟아 내고 있었을 따름입니다.

C.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서 한 번도 눈물을 흘려 본 일이 없고, 자신의 기쁨이나 슬픔을 주님과 한 번도 나누어 본 적이 없으며, 자신의 사적인 일들에 관해 주님과 한 번도 대화해 본 적이 없다면, 그는 주님과 한 번도 친밀한 교통을 가져 본 적이 없고 주님을 전혀 깊이 안 적도 없는 것이다. 우리는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는 것을 통해서만 비로소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끌릴 수 있다.

D. 주님은 우리 문제들 하나하나에 대해 동정하신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을 기꺼이 짊어지고자 하시며, 우리가 하는 말에 기쁘게 귀 기울이신다. 살아 있는 생명수이신 그분을 누리려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반석이신 그분께 말해야 한다 — 민 20:8, 고전 10:4, 출 17:6, 영한 동변 찬송가 248 장(한국복음서원 찬송가 202 장).

[민 20:8] “너는 막대기를 들고, 너의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서 저 반석을 향해 물을 내라고 말하여라. 너는 그들을 위하여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회중과 그들의 가족이 마시게 하여라.”

[고전 10:4] 모두 똑같은 영적인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르는 영적인 반석에서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출 17:6] 이제 내가 거기 호렘에 있는 반석 위에서 네 앞에 서겠다. 너는 그 반석을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물이 나와 백성이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하였다.

- E. 시편 102 편의 제목은 “고통당하는 사람이 지칠 대로 지쳐 여호와 앞에 하소연하는 기도”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불평이 가장 좋은 기도,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불평하는 동안 하나님은 즐거워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도록 그분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 롬 8:28-29.

[롬 8:28-29]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써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²⁹⁾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 F. 시편 73 편은 추구하는 시편 작가의 진실한 기도를 기록한 것이다. 이 시편 작가는 자신은 고난받는데 악인들은 잘되는 것 때문에 자칫 실족할 뻔하였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순수하게 한 것이 헛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물질적으로 잘되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온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 시 73:12-16.

[시 73:12-16] 보라, 이들은 악인들이네 / 항상 편안하며 재물이 쌓여만 가는구나. ⁽¹³⁾ 참으로 나는 헛되이 마음을 순수하게 하였고 / 아무 죄 없이 손을 씻었다네. ⁽¹⁴⁾ 나는 온종일 재앙을 당하고 /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네. ⁽¹⁵⁾ 혹여 “내가 그렇게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자녀들 세대를 배반하는 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¹⁶⁾ 제가 이 일을 이해하려고 깊이 생각할 때에 / 그것이 제가 보기에 괴로운 일이었으나

1. 시편 작가의 당혹감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얻었다(시 73:17). 하나님의 성소 곧 그분의 처소는 우리의 영 안에 있으며(엡 2:22), 또한 하나님의 성소는 교회이다(딤후 3:15). 우리의 영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신성한 계시를 받고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된다.

[시 73:17]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엡 2:22] 그분 안에서 여러분 또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되고 있습니다.

[딤후 3:15] 혹시 내가 늦어지게 되더라도, 그대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기반입니다.

2. 하나님께서 그분을 추구하는 이들에 대해 갖고 계신 의도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누림에서 빗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갖고 계신 궁극적인 갈망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확대하고, 그리스도를 얻어 교회 안에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다 — 빌 1:19-21 상, 3:7-8, 사 43:7, 고전 10:31, 6:20, 벰전 4:11, 엡 3:16-21.

[빌 1:19-21] 왜냐하면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²⁰⁾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매사에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²¹⁾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나에게 있어서 죽음은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빌 3:7-8] 그러나 나에게 유익이 되었던 것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⁸⁾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또한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사 43:7]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들을 / 내가 창조하고 지었으며 심지어 내 영광을 위해 만든 이들을.

[고전 10:31] 그러므로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고전 6:20]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여러분을 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벧전 4:11] 말씀을 전하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봉사를 하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광과 권능이 그분께 영원무궁히 있습니다. 아멘.

[엡 3:16-21]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 주시고, ⁽¹⁷⁾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서 ⁽¹⁸⁾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¹⁹⁾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게 하시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²⁰⁾ 이제 우리 안에서 운행하는 능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해 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 ⁽²¹⁾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